수석합격기
〔제26회 입법고시 수석합격〕

‘수의사’, 국회에 들어가다!

정 원 철

·1978년 3월 生
·서울 오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제26회 입법고시 수석합격

Ⅰ. 들어가며 –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다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저의 직업은 수의사가 아니었습니다. IT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모든 면접에서 면접관들도 묻습니다. 왜 수의사 안하고 다른일을 하냐고... ‘수의사’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좀더 살기좋은 나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의사도 IT프로그래머도 이공계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에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진지 4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거란 무지에 가까웠던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고시, 시간이 흐를수록 수많은 공부천재들과의 경쟁에서 불안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1차에 떨어졌을 때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공부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준 것 같습니다. 스물 아홉이란 늦은 나이에 처자식이 있는 몸으로 고시에 뛰어든 것이 어찌보면 정말 무책임하고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어떤 광고의 카피처럼 도전하는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공부하겠다는 남편을 믿고 끝까지 불평한마디 없이 저의 뒷바라지와 육아를 혼자서 묵묵히 해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합격자마다 그 공부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기에 필요한 부분은 취하시고 아닌 부분은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늦은 나이에 고시를 시작하고 1차 PSAT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평범한 사람의 합격수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Ⅱ. PSAT – 공부하면 오를까?

'9전 3승 6패' 이것이 저의 초라한 PSAT 결과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번의 입시, 행시 PSAT를 봤지만 2008년 행시 1차와 2010년 입시·행시 1차만 합격했습니다. 항상 재경과 일행 커트라인 사이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직렬변경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차에 낙방했을 때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PSAT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작년 한해는 PSAT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 2008년 행시 1차합격 – 커트라인으로 통과

08년도 행시 1차를 정말 운좋게 붙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몇 문제를 찍어서 맞췄기 때문에 겨우 컷으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PSAT공부는 단지 기출문제, 학원 모강문제들만 계속 풀었습니다. 스터디에 참여해서 그냥 문제만 시간재서 풀었습니다. 시중의 문제는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은데 점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2. 2009년 1차 낙방

08년도 2차시험 불합격이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다시 문제만 하루종일 풀었습니다. 스터디를 몇 개씩 하고 하루 종일 PSAT에 투자했지만 결과는 입시, 행시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이때 근본적인 PSAT 공부 방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 PSAT 공부하면 오른다!!

(1) PSAT의 기본은 독해력

언어영역, 상황판단 영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책읽기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생각이 비슷한 동생들을 만나 스터디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배경지식까지 함께 쌓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2분정도의 시간동안 특정 부분을 빠르게 읽고 중심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며 보면서 2차 경제학, 행정학 등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을 하고 사설, 칼럼, 오피니언 등의 글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글들은 너무 논점이 명확해서 PSAT의 난해한 지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2차공부하며 틈틈이 머리식힐 겸 보고 싶은 단행본 서적을 구매하여 읽었습니다.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경제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등 그냥 보고 싶은 책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는 속도가 느린가라는 생각에 인터넷 속독프로그램도 수강해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독해가 안되니 여러번 읽는게 문제였습니다.

(2) 언어논리영역

기본적으로 독해력 향상을 위한 공부는 꾸준히 하였으며 논리파트를 위해 논

리학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 논리추론 바이블 등 논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퀴즈 부분은 상황판단영역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SAT 기출문제와 LEET, MEET/DEET 기출을 전부 풀어보았으며 정선된 지문을 읽기 위해서 수능 기출문제집을 사서 지문만 보았습니다.

(3) 자료해석영역

이공계라 그런지 자료해석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계산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료해석은 다른 영역에 비해 모강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상황판단영역

가장 난감한 영역인 상환판단 영역을 일단 언어문제, 자료문제, 법률문제, 퀴즈문제 이렇게 4분야로 나누고 접근했습니다. 언어, 자료문제는 다른영역 공부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 보고 법률, 퀴즈문제를 공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퀴즈 문제는 실제로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논리퀴즈 바이블을 여러번 봤으며 일본 로스쿨 기출문제집의 퀴즈문제, 우리나라 로스쿨 추리논증 문제 등 퀴즈 소스를 구해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풀었습니다. 나중에는 웬만한 퀴즈 문제는 접근 방법이 유형화되어 빠른 시간안에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 모강 문제에 나온 수많은 퀴즈문제는 이해가 안되는건 버렸습니다.

법률 문제 공략을 위해 법률문제특강이라는 책을 여러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민법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법입문이라는 입문서를 읽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서 오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모강문제에 나오는 법률문제의 지문을 몇 번 읽어두고 익숙해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5) 입시 합격의 밑거름이 된 1차

정리하자면, PSAT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몰아치는 문제풀이는 저같은 경우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만 풀고도 실력이 느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강은 마지막에 시간관리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일찍부터 PSAT 스터디 모집글이 많이 올라오더군요. 1차도 노력한 만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도 합격권까지는 올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도 10분씩 늘어났기 때문에 찍는 것에서 당락이 갈리는 것은 좀 줄어들겠죠. 1차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방법론을 고민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것까지 해야하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런거라도 해서 한문제라도 더 맞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한두문제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중심의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행시 1차는 컷보다 한문제 더 맞았지만 입법고시 1차는 여유있는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입시 2차에 매진할 수 있었고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Ⅲ. 2차 – 교과서를 중심으로....

1. 전체적인 공부목표 – 회독수

저는 서브,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도는 해봤습니다. 서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읽어보니 전체적인 흐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과감히 버렸습니다. 단권화는 성격상 짜르고 붙이고 하는 것이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교과서를 여러번 읽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책 한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한 과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주교재를 여러번 회독하며 의의를 정확하게 외울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의가 정확하지 않으면 답안지 인상이 시작부터 안좋아지기 때문입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행정법

행정법은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걸렸지만 여러번 읽다 보니 시험에 임박해서는 6시간 정도에 1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의,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읽고 판례에서 언급하는 의의는 판례에 나온 문구대로 외웠습니다. 중요한 판례나 답안지에 자주 언급되는 판례는 판례문구를 그대로 외울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의는 김기홍 선생님의 강의를 쭉 따라갔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강의가 저에게 잘 맞았으며 자료의 양이 부담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자료도 필요한 것 빼고는 빨리 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이번 입시 1문이 3순환 최신판례 자료에서 출제된 것이 입시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쓴 것이 76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읽은 교과서는 정하중, 박균성 교수님 책은 사서 읽긴 했지만 홍저에 너무 익숙해져서 계속 읽지는 못했습니다. 사례집은 김연태, 박정훈, 이재화 사례집을 봤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세과목을 한과목처럼 생각하고 연결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시경제학 이후에 재정학을 보고 거시경제학 이후에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는 식으로 조금이라도 연관된 과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본 책은 미시는 이준구, 서승환, 성백남-정갑영, 이영환, 핀다이크, 이영환 해설미시, 임봉욱 미시경제학 연습, 거시는 정운찬-김영식, 이우헌, 김경수-박대근, 안국신, 주상영, 맨큐 등을 봤습니다. 주교재는 이준구, 정운찬 이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은 교과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시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계산을 틀리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교과서 연습문제와 이영환 교수님의 해설미시, 임봉욱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연습을 풀어보았으며, 강

사님들의 모의고사 문제와 김진욱 500제, 황종휴 500제 모두 풀었습니다. 해설이 없는 500제는 스터디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거시 경제학은 정운찬 교수님 교과서를 여러번 회독하였으며 맨큐, 이우헌, 김경수-박대근 등의 교과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정도로 읽었습니다. 거시역시 교과서 연습문제, 김진욱, 황종휴 500제를 모두 풀었으며 학원 모의고사를 모두 구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사문제를 대비해 신문을 꾸준히 봤습니다. 요즘 신문은 경제면이 상당히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스크랩해두었습니다. 신문을 2차시험때까지 꾸준히 봐서 시사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을지 어느정도는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신문과 함께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틈틈이 찾아 읽으며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 두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은 현실을 설명, 예측하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공부보다는 현실경제와의 연관속에 이론을 연결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 재정학

재정학은 이준구, 이만우, 전영섭-나성린, 임봉욱을 보았습니다. 주교재는 물론 이준구 였습니다. 이준구 교수님 교과서는 모두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재정학 역시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행정학스러운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8년도에 계산문제를 틀린 것이 불합격에 큰 기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산문제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올해 입법고시 재정학 문제를 보면 이준구 교수님 교과서로는 절대 커버할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한 강의수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학 역시 신문을 통해 조세제도의 변화,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관심을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현재의 소득세율,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등 현실 국가재정과 연관해서 서술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은 김인준, 크루그만, 김신행-김태기, 국제금융연구회, 남종현, 손정식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창석 저 국제경제학 강의라는 책을 자주 봤습니다. 주교재는 김인준 이었습니다. 김인준 교수님 책이 여러번 보면 읽기 편하지만 처음엔 가독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없는 내용도 있어 김신행-김태기 국제경제론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최근 여러번 출제되고 있는 AA-DD모형 역시 김신행-김태기 교과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50점 선택과목이라 소홀하게 되는 과목이라 의외로 과락도 많이 나옵니다. 거시경제학과의 연계가 커서 시너지효과를 생각하면 소홀해서는 안되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경제학이야말로 시사를 많이 타는 과목입니다. 이번시험에서도 유럽 경제위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신문과 삼성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행정학

마지막까지 가장 고민하게 만든 과목이었습니다. 재경직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행정학이란 과목이 참 어려웠습니다. 답안지도 글짓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해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본 교과서는 새행정학, 한국행정학,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미래의 행정이었습니다. 주교재는 한국행정학이었으며 강의도 여러 강사를 들어봤지만 막대한 자료의 양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냥 버렸습니다. 시험 전까지 한국행정학을 여러 번 보고 3순환에서 박경효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박경효 교수님 강의를 들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저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의 자료로 공부하는 것이 양은 작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교수님의 문장을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생각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세세한 공부보다는 회독수를 늘리는 공부를 목표로 했고, 신문을 읽으며 시사정보를 꾸준히 스크랩한 것이 답안지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려고 했으며 학원을 다니며 계속 쌓이기만 하는 자료는 필요한 것만 제외하고 모두 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교과서를 본다는 것이 양도 줄어들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제이건 정리된 모법답안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없어 불안하기도 했으며,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소위 나오면 그대로 바른다는 정도의 정리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으로 봐서는 그대로 외워서 쓰는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저에겐 행운이 된 것 같습니다.

답안지 작성하는데 초안을 잡으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져서 초안을 잡지 않고 쓰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초안을 잡아도 초안대로 써지지도 않는다는 생각에 최대한 논리적 흐름을 이어가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익숙해지니 100점 답안은 실전에서도 5분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돈된 글씨로 쓸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으며, 풀 수 있는 문제는 첫 문제부터 써내려갔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공부방법, 답안지 작성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공부한 놈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Ⅳ. 생활측면

1. 스트레스 해소

고시공부하며 스트레스를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며 경쟁에서 오는 압박감,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남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잠을 자는 경우에도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늦잠 안자면 낮에 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최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생각했고, 친구들과 놀아도 스트레스 해소했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서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씩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 해소의 길이었으며 딸아이의 웃음한번에 일주일의 피로가 한방에 풀렸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엔 일주일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스터디

스터디가 꼭 필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공부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혼자서 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1차 스터디는 문제를 푸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별다른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스터디 역시 답안지를 쓰는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어차피 예시답안 최고답안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는 1차 스터디를 꾸준히 했고 1차시험에 다가가서는 실제 시험과 같은 시간에 같은 영역의 문제를 매일 꾸준히 풀어 싸이클을 시험에 맞췄습니다. 2차 답안지 스터디는 입시 1차 이후엔 하지 않았습니다. 3차 면접은 스터디에 참여하여 집단토론과 개별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친해진 것이 집단토론에서 도움이 되었으며 스터디에서 예상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면접시험에 나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너무 친해져 술마시고 놀아버리면 스터디를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어느정도 스터디원들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스터디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3. 몸관리

작년 1차에 떨어지고 체력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다녔지만 1차에 가까워지면서 그만두고 먹고싶은 음식을 돈 아끼지 않고 먹었습니다. 1차시험에서 건강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차시험 전엔 11시 정도면 잠을 잤고 잠도 많이 잤습니다. 고시공부가 마라톤에 비유하듯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1주일 이상을 버리게 됩니다. 유행하는 병이나 독감 등은 예방접종을 받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4. 학원

1차는 학원 수강이 필요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 역시 PSAT학원을 다녀봤습니다. 현재 기본강의는 15회나 하는데 수업내용은 강사 책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과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차라리 강사들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시는게 더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공부하고 이해하는 공부가 되야 합니다. 1차 모강역시 학원가서 푸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강의를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2차는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1,2,3 순환 모두 따라갔으며 이후 학원은 다니지 않고 혼자서 교과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3순환은 박경효 교수님

행정학만 수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입시 2차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을 것 같았으며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려고 노력했습니다.

5. 이성친구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 문제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아온 바로는 아무래도 이성친구가 있으면 밥먹는 시간도 길어지고 때마다 다가오는 기념일들 챙기느라 바쁘고 시간과 마음을 이성친구에게 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헤어지는 날에는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성친구가 없다면 합격할때까지 공부에만 전념해도 합격의 보장이 없는 시험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이성친구를 만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친구가 있다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Ⅴ. 감사의 글

결혼 후 1년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시작한지 4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묵묵히 저의 뒤를 지켜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편의 빈자리에 힘들어했을 아내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야했던 나의 딸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나에게 충전지가 되어준 아내와 딸에게 앞으로의 삶에서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육아에 큰 도움을 주신 저의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밥먹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많은 도움을 준 한빛 군과 명한 군에게도 감사하며, 1차 스터디를 함께했던 영신, 아영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년에 만나 지금까지 좋은 친구로 함께해준 옛 스터디 멤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고시공부하는 친구와 함께 놀아준 사랑하는 나의 친구 지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수의사는 말 못하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직업이지만 제대로 된 법률과 예산은 5천만 국민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말못하는 동물의 아픔을 알아내듯 표출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까지 듣는 입법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부족한 합격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